



## 미 증시, CPI 발표 앞둔 대기심리에 제한적인 움직임

### 미국 증시 리뷰

9 일(화) 미국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둔 대기심리 및 10 년물 금리 4%대 돌파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,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경신에 힘입어 나스닥은 상승 마감. (다우 -0.42%, S&P500 -0.15%, 나스닥 +0.09%)

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지난해 3 월 실리콘밸리 은행(SVB)의 파산 이후 은행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 '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(BTFP)'이 1 년 시한이 끝나는 3 월에 연장 없이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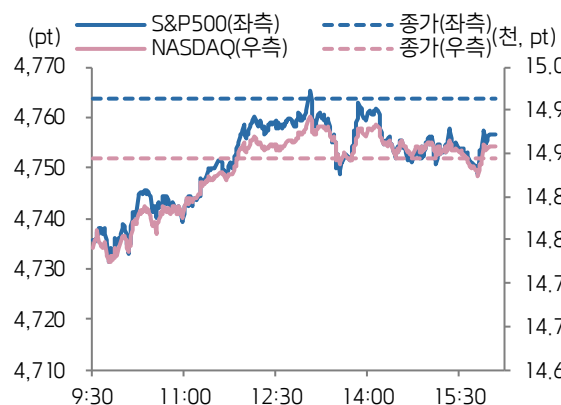
세계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.4%(2023 년 경제성장률 추정치 2.6%)로 제시, 지정학적 갈등과 교역 둔화, 긴축 정책 등을 이유로 3 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. 미국은 긴축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고 팬데믹 기간 저축한 소득을 소진하면서 작년 추정치(2.5%)보다 둔화한 1.6%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. 중국은 작년 추정치(5.2%)대비 둔화된 4.5% 성장할 것으로 예상, 소비심리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가 근거.

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(NSC)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대만의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만이 자유롭게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. 미국은 중국의 대만선거 개입 가능성을 경계해왔으며, 중국은 대만의 총통 선거(13 일)를 사흘 앞둔 이날 대만 상공을 통과한 위성을 발사했으며, 전날에는 대만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 10 대와 군함 4 척이 포착.

EU 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개발사 오픈 AI 투자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 언급. 영국 경쟁시장청(CMA)도 지난달 초 MS 와 오픈 AI 의 투자·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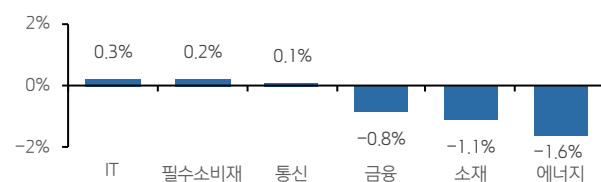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 IT(+0.3%), 필수소비재(+0.2%), 통신(+0.1%) 강세, 에너지(-1.6%), 소재(-1.1%), 금융(-0.8%) 약세. 애플(-0.23%), 알파벳(1.52%), 아마존(1.52%), 메타(-0.34%), 디즈니(-2.05%)등 시총 상위 기술주는 혼조세. )엔비디아(1.7%)는 CES2024 를 앞두고 성능을 한계선한 그래픽카드(GPU)인 RTX 4070 슈퍼, RTX 4070 Ti 슈퍼, RTX 4080 슈퍼 등 세 가지를 발표하면 사상 최고치 경신. 해당 제품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수출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언급.

### 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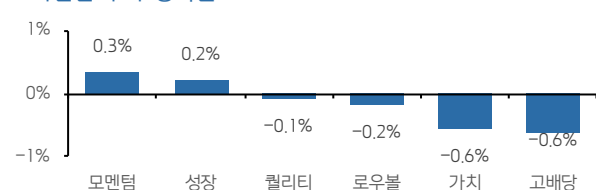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561.24	-0.26%	USD/KRW	1,315.80	+0.01%
코스피 200	343.81	-0.51%	달러 지수	102.53	+0.31%
코스닥	884.64	+0.6%	EUR/USD	1.09	-0.02%
코스닥 150	1,397.33	+0.53%	USD/CNH	7.19	+0.02%
S&P500	4,756.50	-0.15%	USD/JPY	144.47	-0.01%
NASDAQ	14,857.71	+0.09%	채권시장		
다우	37,525.16	-0.42%	국고채 3년	3.247	-4.3bp
VIX	12.76	-2.45%	국고채 10년	3.315	-4bp
러셀 2000	1,968.04	-1.05%	미국 국채 2년	4.364	-1bp
필라. 반도체	4,064.66	+0.05%	미국 국채 10년	4.013	-1.7bp
다우 운송	15,512.30	-0.85%	미국 국채 30년	4.186	-0.8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467.17	-0.41%	WTI	72.24	+2.08%
MSCI 전세계 지수	721.79	+0.89%	브렌트유	77.51	+1.83%
MSCI DM 지수	3,153.62	+1.06%	금	2033	-0.02%
MSCI EM 지수	996.76	-0.53%	은	23.09	-0.94%
MSCI 한국 ETF	61.78	-2.26%	구리	375.85	-1.35%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					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2.26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1.42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6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18.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CES2024,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뉴스플로우 2. 엔비디아의 연이은 신고가 경신이 국내 AI 관련주에 추가 모멘텀을 제공할 지 여부 3.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
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의 6 회 인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금리 반등, 달러 반등과 같이 되돌림 현상이 수시로 출현하고 있음. 그렇지만 최근 시장이 입수한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혹은 AI 와 같이 주식시장 내 주도 테마업종 강세 등이 지수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모습. 투자심리지표인 CNN 의 Fear & Greed Index 는 73pt 로 극단의 탐욕 영역(76pt~100pt)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, “3 월 FOMC 인하 시작 & 연 6 회 인하”의 컨센서스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.

이제 시장이 고민해야할 것은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. 이는 내일 밤 발표 예정인 12 월 CPI 와 본격적으로 시작 예정인 4 분기 실적시즌에 달려있을 전망. 이들의 증시 영향력이 여타 지표나 이벤트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 시 그 결과에 따른 주가 여진은 차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.

전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등 미국 AI 주 급등,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 하락 등에도 삼성전자 실적 부진이 대형주 중심으로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게 만들면서 혼조세로 마감(코스피 -0.3%, 코스닥 +0.6%). 금일에도 5 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, 미국 증시의 장중 낙폭 회복 소식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. 장중에는 CES 2024,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,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 뉴스플로우 등 개별 업종 및 테마 별 재료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.

지난 몇 차례 당사 코멘트를 통해 언급했듯이, 주요국 증시 대부분이 현재 이익 성장 기대치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. 4 분기 실적시즌을 통해 이 같은 큰 폭의 이익 성장에 대한 정당성(ex: 50% 이익성장은 충분히 달성하는 하다)을 확보할 수 있다면, 증시 입장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지수 상단을 뚫게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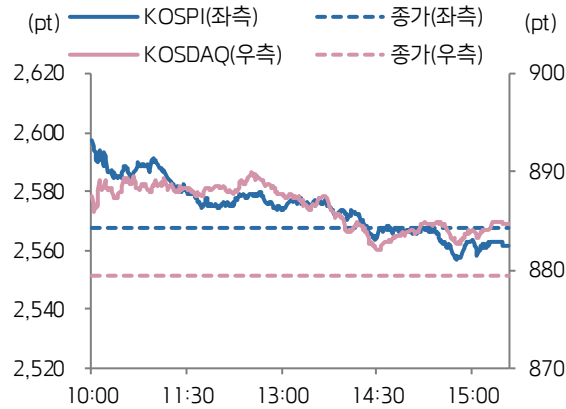
하지만 국내 증시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, 연초의 이익 전망치를 실제 실적이 충족하거나 상회했던 사례는 2010~2011 년(차화정 사이클), 2017 년(반도체 슈퍼사이클), 2021 년(판데믹 이후 대규모 부양 효과) 등 소수에 불과. 이게 가능했던 것은 글로벌 경기의 탄력적인 호전, 과잉 유동성 환경 등 주식시장에 여느 때보다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조성된 덕분인데,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외부 환경의 조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임.

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하향 조정될 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. 이런 측면에서 8 일 LG 전자(4Q 영업이익 3,125 억원 vs 컨센 6,395 억원), 9 일 삼성전자(2.8 조원 vs 컨센 3.7 조원), LG에너지솔루션(3,380억원 vs 컨센 5,877억원) 등 주력 IT 대형주들의 잇따라 어닝 쇼크는 걱정이 되는 부분(상기 3개 업체의 발표된 이익을 적용하면, 2023 년 연간 영업이익은 173.6 조원에서 172.1 조원으로 약 1.5 조원 감소 예상)

그럼에도 전일 삼성전자(-2.4%)를 제외한 SK 하이닉스(+1.0%), LG 에너지솔루션(+0.6%), LG 전자(-1.1%) 등 여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이 같은 주가 움직임은 올해 연간 실적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, 현재는 국내 기업들의 메인 수요처인 미국의 경기 둔화 정도, 인플레이션, 연준 정책 등 거시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하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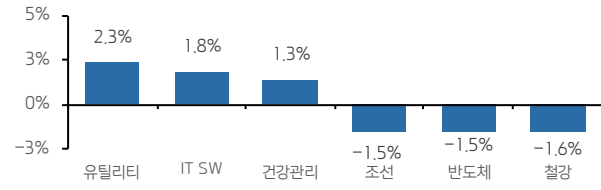
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지수 하단이 뚫릴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기 보다는 향후 1 개 분기(1~3 월) 동안의 매크로 상황 변화를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. 그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높아지더라도 지수 상단이 막히는 기간 조정에 국한되면서 개별 업종 장세가 전개되는 것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설정할 필요.

## KOSPI &amp;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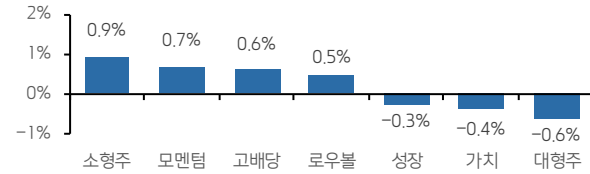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 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